

일부 대학 신입생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김진희*

I. 서론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번역되는 AIDS(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에 의한, 면역체계의 붕괴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된 감염경로는 성접촉이지만, 감염인을 치료하거나 의료시술을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도 감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출혈이 있는 외상환자의 현장처치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도 에이즈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에이즈는 오염된 주사바늘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지만, 외상환자의 응급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손상 부위에 감염인이나 환자의 혈액이 오염되는 경우에도 전파될 수 있다. 상처를 통한 감염은 접촉한 감염인의 바이러스 혈중농도에 따라, 상처의 깊이와 크기, 그리고 상처와 혈관과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¹⁾.

유엔 기구인 UNAIDS의 2006년 발표에 의하면, 2005년 말까지 약 38,600,000명이 HIV를 가지고 있고, 2005년에 4,100,000명이 새로 감염되었으며, 280,000명이 에이즈로 생명을 잃었다고 발표하였다²⁾.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6

년 상반기(1~6월) 보고된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398명(하루 평균 2.2명씩 발견)이며, 2006년 6월 말까지 확인된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인수는 4,227명이며 이중 773명이 사망하여 3,454명이 생존해 있다고 발표하였다³⁾. 그러나 실제 감염인수는 보고된 수의 5~10배에 달한다⁴⁾고 하므로 국내 감염자의 수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경로는, 대부분(98.5%)이 성접촉(이성간 성접촉 59.8%, 동성간 성접촉 38.7%)이었으나, 감염경로가 밝혀진 3,561명에 대한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수혈을 포함한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예도 46예(1.3%)가 누적되었다고 발표하였다³⁾.

2006년 4월 대한적십자사의 발표로, 수혈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혈액의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아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헌혈을 할 수 없는 헌혈유보군이 2005년 말 기준 489,659명으로 50만 명에 육박하며, 에이즈 감염자 등의 영구유보군이 5,254명이라고 발표하였다⁵⁾. 이런 헌혈유보군에 해당하는 국민이 출혈이 동반되는 외상을 입고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상처의 혈액에 접하게 되는 응급구조사는 혈액을 통하여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의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2000년 6월 현재 56명의 의료인 감염이 확진되었고⁶⁾, 1997년과 2001년 사이에 남아프리카 병원인력의 14%가 에이즈로 사망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⁷⁾.

* 공주대학교 보건학부 전문응급구조학전공

HIV가 점막이나 혈액에 노출된 후 새로운 HIV입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보통 21.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⁸⁾, 에이즈 감염인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경우에는 “예방적 약제투여의 시작시간과 투여기간”을 가능하면 노출 후 1~2시간 이내에 빨리 시작해서, 약 4주간의 투여가 권장되고 있다⁹⁾. 이렇게 혈액으로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이 상존하고, 응급구조사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아직 에이즈 예방을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의 전염병관리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는 일반인 및 보건의료인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Blendon, R & Donelan, K, 1988¹⁰⁾; Schwarz, MR, 1989¹¹⁾; McNicloe, LB. et al, 1991¹²⁾; Gee, G, 1993¹³⁾; Dear MR & Moore, JB, 1994¹⁴⁾), 우리나라에서도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관한 연구들(오정아, 1999¹⁵⁾; 서인선 외, 1997¹⁶⁾; 신영희 외, 1996¹⁷⁾; 김성아, 2000¹⁸⁾)이 있다.

이에 저자는 응급구조사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에이즈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보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감염관리나 에이즈예방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추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 신입생 2,026명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를 조사하였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5년 3월에 일개 대학교 신입생 2,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응답내용이 부적

절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22개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측정은 에이즈의 정의 4문항, 진단 4문항, 증세 4문항, 전파경로 23문항, 예방 4문항과 치료에 관한 6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로 응답 명수와 정답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측정은 개인과 사회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 10항목, 에이즈 감염인이나 환자에 대한 태도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과 사회적인 태도는 5점 척도(“절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감염인이나 환자에 대한 태도는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하여 태도를 측정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총 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15문항, 에이즈에 대한 지식측정 46문항, 에이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2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는 문항은 에이즈의 정의, 진단, 증세, 감염경로, 예방, 치료기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개인 및 사회적 편견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에이즈에 관한 지식측정을 위해서는 미국적십자(1992)에서 출간한 에이즈 교육자료와 보건복지부(1995), 한국소비자 연맹, 대한에이즈협회(1995)의 에이즈에 관한 여러 문헌을 토대로 수정·개발하였다. 문항은 정답과 오답이 고루 배치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정답에는 1점, 오답에는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SPSS/PC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각 문항에 대하여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을 산출하였다.

5. 연구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설계가 서술적 연구조사(descriptive study design)인 점과 연구대상자를 무작위추출법에 의해서 추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 대학 신입생으로만 국한했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을 대표할 수 없으며, 이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시킬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나이와 성별 외에 에이즈와 관련된 13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성별은 남·녀가 비슷하였으며, 조사대상이 대학교 신입생이므로 만 19세와 20세가 대부분(78.7%)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95.7%는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에이즈에 대한 교육경험은 성교육 교육에 비해 반 정도(41.4%)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술을 지금도 마시거나 마시다 끊은 경우는 82.9%였으나,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다 끊은 경우는 17.5%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 비해 환각제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였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1.4%였으나, 70.3%가 성접촉 경험은 없다고 응답했고, 성접촉은 키스(19.7%), 애무(6.8%), 성교(3.2%)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97.3%)이 이성애자라고 응답했으나,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의 성향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도 2.7% 있었다.

에이즈 예방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콘돔사용에 대한 조사에서, 콘돔사용 교육을 받은 경우는 40.4%이지만, 실제로 콘돔을 사용해본 경우는 3.6%이고, 그나마 콘돔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2%였다.

응답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얻는 정보원은 주로 교육(36.3%)과 TV.방송(31.6%)이었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은 7.2%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 신입생들이 에이즈에 대한정보제공을 받고자 하는 매체도 비슷한 순서였다.

2.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정도

에이즈에 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총 46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32.30±5.25이었고, 정답률은 70.22%였으며, 최저 9점 최고 45점이었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은 에이즈의 정의, 진단, 증세, 전과경로, 예방, 치료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표 2 참조>.

1) 에이즈 정의에 대한 지식

“AIDS는 신체의 면역기능을 없애서 병균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질병이다”라는 질문에는 93.2%, “AIDS 검사결과 양성이라도, 건강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라는 질문에는 90.7%의 정답율을 보였으나, “AIDS 바이러스가 몸에 있으면 AIDS 환자이다”라는 질문에는 60.1%의 응답자에서 오답율을 보여서, 잠복기 상태로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는 에이즈 감염인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였다. 더욱이 “AIDS 검사결과 항체가 발견되면, 이 병에 면역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질문에는 4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면역결핍에 대한 의미 파악이 정확치 않았나하는 의심이 들었다.

2) 에이즈 진단에 대한 지식

“AIDS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받아본다”는 질문에는 91.2%, “AIDS는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AIDS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다”의 질문에는 91.9%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에이즈의 잠복기가 평균 8~10년이란 질문에는 27%가 틀리다고 대답하였고, 에이즈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면 4주 이내에 감염여부를 알 수 있다고 틀린 대답을 선택한 경우가 33.8%나 되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수	%
성 별	남	978	48.5
	녀	1038	51.5
나 이	18세 이하	333	16.5
	19~20세	1572	78.7
	21세 이상	93	4.6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	있 다	1931	95.7
	없 다	43	2.2
	모르겠다	42	2.1
AIDS교육을 받아본 경험	있 다	834	41.4
	없 다	923	45.8
	모르겠다	258	12.8
음주	마신다	1570	77.9
	마시다가 끊었다	101	5.0
	마신 적이 없다	345	17.1
흡연	피운다	210	10.4
	피우다 끊었다	142	7.1
	피운 적이 없다	1664	82.5
환각제	사용한다	11	0.5
	사용하다 끊었다	14	0.7
	사용한 적이 없다	1988	98.8
이성교제 경험	있다	1033	51.4
	없다	968	48.6
성접촉 경험	없음	1407	70.3
	애무, 포옹	136	6.8
	키스	393	19.7
	성관계	65	3.2
본인의 성적성향	이성애자	1937	97.3
	동성애자	20	1.0
	양성애자	33	1.7
콘돔사용 교육을 받아본 경험	있다	811	40.4
	없다	1041	51.9
	모르겠다	155	7.7
콘돔사용 경험	있다	72	3.6
	없다	1931	96.4
콘돔사용법에 대한 지식	정확히 알고있다	164	8.2
	대략 알고있다	1314	65.4
	전혀 모른다	530	26.4
AIDS에 대한 지식 정보원	TV, 라디오	631	31.6
	신문, 잡지	119	6.0
	홍보물 책자	115	5.8
	교육	725	36.3
	인터넷	144	7.2
	친구	61	3.1
	기타	201	10.1
AIDS 지식을 얻고 싶은 정보원	TV, 라디오	471	23.6
	신문, 잡지	128	6.4
	홍보물 책자	161	8.1
	교육	75.6	37.8
	인터넷	200	10.0
	친구	56	2.8
	기타	228	11.4

<표 2> 응답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

에이즈의 정의	예	아니오
AIDS는 신체의 면역기능을 없애서 병균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질병이다.	1879(93.2)	137(6.8)
AIDS 바이러스가 몸에 있으면 AIDS 환자이다.	804(39.9)	1210(60.1)
AIDS 검사결과 양성이라도, 건강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	1823(90.7)	187(9.3)
AIDS 검사결과 항체가 발견되면, 이 병에 면역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1042(52.0)	962(48.0)

에이즈의 진단	예	아니오
AIDS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면 4주 이내에 감염여부를 알 수 있다.	1330(66.2)	678(33.8)
AIDS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혈액검사를 받아본다.	1835(91.2)	178(8.8)
AIDS는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AIDS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다.	1852(91.9)	163(8.1)
AIDS의 잠복기는 평균 8~10년이다.	1465(73.0)	543(27.0)

에이즈의 증세	예	아니오
AIDS는 감염이 되자마자 증상이 나타난다.	1884(93.7)	126(6.3)
AIDS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염증 물질이 나타난다.	1503(74.6)	513(25.4)
AIDS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병으로 죽는다.	954(47.4)	1059(52.6)
AIDS에 걸린 사람은 폐렴에 걸리기 쉽다.	1388(68.9)	627(31.1)
AIDS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쉽다.	1158(57.5)	856(42.5)

에이즈의 예방	예	아니오
최근 개발된 예방접종으로 AIDS를 예방할 수 있다.	1370(68.2)	640(31.8)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한 사람과 관계보다 AIDS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1845(91.6)	169(8.4)
성교할 때 콘돔을 사용하면 AIDS전염을 줄일 수 있다.	1804(89.5)	211(10.5)
HIV 감염자가 사용한 의복 및 침구는 예방을 위해 모두 태워야 한다.	1024(50.6)	989(49.1)

에이즈의 치료	예	아니오
AIDS 상담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알고 있다.	352(17.5)	1659(82.5)
AIDS 관련지식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시설을 알고 있다.	319(15.9)	1692(84.1)
AIDS 환자의 치료기관을 알고 있다.	216(10.7)	1795(89.3)
AIDS환자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1612(80.1)	401(19.9)
AIDS는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 될 수 있다.	1271(63.2)	739(36.8)
최근에 AIDS의 치료를 위한特效약이 개발되었다.	1326(66.0)	684(34.0)

응답자는 혈액검사로 에이즈 감염여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응답자의 1/3은 항체 형성기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였고, 응답자의 1/4은 에이즈의 잠복기가 8~10년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3) 에이즈 증상에 대한 지식

“AIDS는 감염이 되자마자 증상이 나타난다”란 질문에는 93.7%의 응답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염증 물질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약 3/4의 응답자가, 폐렴은 2/3, 암은 과반(57.5%) 정도의 응답자가 에이즈의 증상으로 지적하였으나, 에이즈 환자의 사망원인이 면역결핍에 의한 기회감염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47.4%에 불과하였다.

4) 에이즈의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

혈액을 통한 에이즈 전파위험은,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수혈에 의한 에이즈발생의 여파인지 많은 응답자가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여 혈액에 의한 전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다<표 3 참조>.

“AIDS에 감염된 사람이 헌혈한 혈액으로 수혈을 받으면 AIDS에 걸린다”라는 질문에는 95.7%의 정답률을, “AIDS에 걸린 사람에게 사용한 주사바늘로 주사를 맞으면 AIDS에 걸린다”는 질문에는 94.7%의 응답자가 정답율을 보였으며, 혈액과 관련된 체액에 의한 전파경로에 대한 지식을 묻는 “귀를 뚫거나 문신을 새길 때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라는 질문에는 83.3%의 정답률을 나타내어 혈액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손톱깎이, 면도날 등 일상용

<표 3> 에이즈의 감염경로

항 목	예	아니오
AIDS에 걸린 사람에게 사용한 주사바늘로 주사를 맞으면 AIDS에 걸린다.	1910(94.7)	106(5.3)
AIDS에 감염된 사람이 나에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감염될 위험이 있다.	1505(74.8)	507(25.2)
모기에 물리면 AIDS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963(47.8)	1053(52.2)
AIDS 환자가 입던 의복을 입으면 AIDS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1773(88.1)	239(11.9)
정맥주사에 의한 상습적인 약물복용자는 AIDS에 걸리기 쉽다.	1215(60.7)	786(39.3)
AIDS보균자와 함께 목욕을 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	1514(75.3)	496(24.7)
AIDS 보균자와 함께 운동이나 놀이를 하면 AIDS에 걸린다.	1853(92.2)	157(7.8)
AIDS 보균자와 함께 일하면 AIDS에 걸린다.	1853(92.4)	153(7.6)
AIDS 감염인과 구강으로 성관계를 하면 AIDS에 걸리지 않는다.	1516(75.6)	489(24.4)
AIDS보균자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단 한번만 성관계를 하여도 전염될 수 있다.	1679(83.4)	335(16.6)
손톱깎이, 면도날 등 일상용품은 AIDS환자와 함께 사용하여도 감염되지 않는다.	1252(62.3)	758(37.7)
AIDS에 감염된 사람이 헌혈한 혈액으로 수혈을 받으면 AIDS에 걸린다.	1926(95.7)	87(4.3)
AIDS에 걸린 사람과 악수나 포옹을 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	1879(93.7)	127(6.3)
임신한 여성이 AIDS에 걸리면 태아도 AIDS에 걸릴 수 있다.	1770(87.9)	243(12.1)
귀를 뚫거나 문신을 새길 때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	1676(83.3)	337(16.7)
한 그릇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경우 AIDS에 걸릴 수 있다.	1526(76.0)	483(24.0)
AIDS에 걸린 사람과 일반적인 키스를 하면 AIDS에 걸린다.	1301(64.6)	713(35.4)
공중화장실 변기에서 AIDS에 전염될 수 있다.	1407(70.0)	602(30.0)
AIDS에 감염인이 사용하던 물잔이나 술잔을 같이 사용하면 감염될 위험이 있다.	1390(69.1)	622(30.9)
항문으로 성관계하면 AIDS에 걸리기 쉽다.	1587(79.1)	420(20.9)
헌혈하는 과정에서 AIDS에 걸릴 수 있다.	269(13.3)	1746(86.7)
AIDS에 걸린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AIDS를 감염시킬 수 있다.	1270(63.2)	602(36.8)
AIDS 환자가 흘리는 눈물은 AIDS를 전파시킬 수 있다.	1687(83.9)	324(16.1)

품은 AIDS환자와 함께 사용하여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62%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정답률을 보여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를 통한 전염위험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적었다. “모기에 물리면 AIDS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2%로 반을 넘게 오답율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혈액에 의한 전파경로에 대한 지식으로 “정맥 주사에 의한 상습적인 약물복용자는 AIDS에 걸리기 쉽다”는 질문에는 60.7%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헌혈하는 과정에서 AIDS에 걸릴 수 있다”고 틀리게 대답한 경우가 86.7%에 달했다.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경로에 대한 질문으로 “AIDS에 감염된 사람이 나에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74.8%가, “AIDS 환자가 입던 의복을 입으면 AIDS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88.1%, “AIDS보균자와 함께 목욕을 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75.3%의 정답률을 보여 환자나 감염인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었고, “AIDS 보균자와 함께 운동이나 놀이를 하면 AIDS에 걸린다”는 질문에는 92.2%, “AIDS 보균자와 함께 일하면 AIDS에 걸린다”는 질문에는 92.4%의 정답률을 보여 일상생활에 의한 전염의 위험이 적다는 사실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그 외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에 대한 지식으로 “AIDS에 걸린 사람과 악수나 포옹을 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93.7%의 정답률을, “한 그릇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경우 AIDS에 걸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76%의 정답률을, “AIDS에 감염인이 사용하던 물건이나 술잔을 같이 사용하면 감염될 위험이 있다”란 질문에는 69.1%의 정답률을 보여 음식을 통한 에이즈 전파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었다. “AIDS 환자가 흘리는 눈물은 AIDS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는 83.9%의 정답률을 보였다.

성적접촉을 통한 에이즈전파에 대한 지식은 “AIDS 감염인과 구강으로 성관계를 하면 AIDS에 걸리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75.6%의 정답률을, “AIDS보균자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단 한번만 성관계를 하여도 전염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83.4%의 정답률을 보여 정액이나 질분비액에 노출되는 성관계에는 비교적 양호한 지식을 나타내었으나, “AIDS에 걸린 사람과 일반적인 키스를 하면 AIDS에 걸린다”는 질문에는 64.6%의 정답률을 보였다.

“항문으로 성관계하면 AIDS에 걸리기 쉽다”는 질문에는 79.1%의 정답률을 나타내어 동성애나 항문성교에 의한 감염의 위험을 알고 있었으나, “공중화장실 변기에서 AIDS에 전염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70%의 정답률을 보여 변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수직감염에 의한 전파에 대한 지식에서 “임신한 여성이 AIDS에 걸리면 태아도 AIDS에 걸릴 수 있다”는 질문은 87.9%, “AIDS에 걸린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AIDS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질문은 63.2%의 정답률을 보였다.

5) 에이즈의 예방

“최근 개발된 예방접종으로 AIDS를 예방할 수 있다”란 질문에는 68.2%의 정답률을 보였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한 사람과 관계보다 AIDS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질문에는 91.6%의 응답자가 정답률을 보였다.

“성교할 때 콘돔을 사용하면 AIDS전염을 줄일 수 있다”는 질문에는 89.5%의 정답률을 보여 콘돔 사용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HIV 감염자가 사용한 의복 및 침구는 예방을 위해 모두 태워야 한다”는 질문에는 정답률이 57.5%로 낮았다.

6) 에이즈의 치료에 대한 지식

“AIDS 상담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자원”이나, “AIDS 관련지식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시설”, “AIDS 환자의 치료기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10~17% 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AIDS는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질문과 “최근에 AIDS의 치료를 위한特效약이 개발되었다”는 질문에는 60% 대의 정답률을 보였다. 다만 “AIDS 환자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로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다”는 질문에는 80.1%의 응답자가 정답을 나타내었다.

3. 에이즈에 대한 태도

5점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는 10항목으로 자신의 에이즈 감염 위험인식과 에이즈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고, 3점척도(“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로 구성된 11개 항목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4 참조>.

“우리나라의 에이즈 문제는 심각하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2%에서 “보통이다”로 대답하였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35.5%라고 대답하였다. “자신이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없다”란 질문에는 약 반수인 46.4%는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약 1/4인 25.6%의 응답자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다”란 응답은 12.5%였고, 자신의 에이즈 감염위험을 인정한 경우는 15.3%였다. 49.3%의 응답자는 “기회가 있으면 에이즈 검사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주변에 에이즈 환자가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질문에는 72.2%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였다. “모르는 이성과 성관계시 콘돔 사용은 필수적이다”라는 질문과 “나는 감염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85% 이상의 응답

자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에이즈란 말을 들으면 혐오감이나 무서움을 느낀다”는 질문에는 49%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89.4%의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에이즈 전염은 개인의 잘못이다”라는 질문에는 38.7%의 응답자가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로 답하였으나, “나는 에이즈 환자와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18.7%의 응답자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3점 척도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표 5 참조>는 “AIDS에 걸린 사람은 동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3.8%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AIDS에 걸린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사람이다”는 질문에는 14.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에이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벌이다”라는 질문에는 24.1%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AIDS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19.5%의 응답자가, “AIDS에 감염된 아동은 다른 아동과 함께 학교에 다녀서는 안된다”란 질문에는 18.9%의 응답자가 “AIDS에 걸린 친구는 피하겠다”는 질문에는 20.0%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대략 1/5의 응답자는 에이즈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었으나, “AIDS는 특수한 사람들만의 문제이다”란 질문에는 9.3%의

<표 4> 에이즈에 대한 태도

항 목	++	+	o	-	-- (%)
나는 AIDS의 감염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53.8	33.9	10.0	1.4	0.9
모르는 이성과 성관계시 콘돔 사용은 필수적이다.	58.5	28.9	10.4	1.4	0.7
나는 AIDS에 걸릴 위험이 없다.	46.4	25.6	12.7	8.7	6.6
기회가 있으면 AIDS 검사를 받고 싶다.	17.1	32.2	36.9	10.4	3.2
내 주변에 AIDS 환자가 있을 것만 같아 불안하다.	2.7	4.9	20.2	51.3	20.9
AIDS란 말을 들으면 혐오감이나 무서움을 느낀다.	15.2	33.8	34.9	13.7	2.3
사회적으로 AIDS 예방교육은 필요하다.	57.0	32.4	8.8	1.1	0.5
우리나라의 AIDS 문제는 심각하다.	9.0	26.9	50.2	12.7	1.1
나는 AIDS 환자와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4.2	14.5	38.1	28.8	14.4
AIDS의 전염은 개인의 잘못이다.	11.5	25.4	24.4	32.7	6.0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o: 보통이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표 5> 에이즈에 대한 태도

항 목	+	o	- (%)
AIDS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벌이다.	24.1	25.9	50.0
AIDS에 걸린 사람은 동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3.8	15.2	81.0
AIDS에 걸린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사람이다.	14.2	30.5	55.3
AIDS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19.5	31.7	48.8
AIDS에 감염된 아들은 다른 아동과 함께 학교에 다녀서는 안된다.	18.9	32.2	48.9
AIDS에 걸린 친구는 피하겠다.	20.0	36.0	44.0
AIDS는 특수한 사람들만의 문제이다.	9.3	13.1	77.6
AIDS 환자도 사회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	84.1	10.4	5.4
AIDS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47.3	18.3	34.4
AIDS 감염자도 학교나 직장에 다닐 수 있다.	54.8	25.8	19.3
AIDS에 감염된 가족이 있다면 그를 돌보겠다.	58.9	29.8	11.3

+ : 그렇다, o : 잘 모르겠다, - : 아니다

응답자 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으며, “AIDS 환자도 사회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84.1%의 응답자가, “AIDS 감염자도 학교나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질문에는 54.8%의 응답자가, “AIDS에 감염된 가족이 있다면 그를 돌보겠다”는 질문에는 58.9%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긍정적인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약 반수(47.3%)의 응답자에서 “AIDS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환자의 비밀유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IV. 논 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묻는 총 46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32.30±5.25 점으로 이를 백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정답률은 70.22점에 해당하였다. 비록 똑같은 문항으로 질문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1994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¹⁷⁾의 58.6점 보다 월등히 향상되었으나, 같은 해(1994년)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¹⁹⁾의 76.8점 보다는 낮았다. 근래 대중매체를 통한 에이즈에 관한 홍보와 학교교육의 결과로 에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성교육을 받

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95.7%인데 비해 에이즈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1.4%로 나타나서 에이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학교교육에서 성교육은 활발히 시행되어 왔으나 에이즈에 대한 교육은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성교육에 비해 적게 시행된 결과로 생각된다.

에이즈 정의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서 “AIDS는 신체의 면역기능을 없애서 병균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질병이다”라는 질문에는 93.2%의 정답률을 보여서 면역기능이 병균의 방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AIDS 검사결과 양성이라도, 건강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라는 질문에는 90.7%의 정답율을 보여서 AIDS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증상이 없더라도 에이즈 전파위험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AIDS 바이러스가 몸에 있으면 AIDS 환자이다”라는 질문에는 60.1%의 응답자에서 오답율을 보여서, 오히려 잠복기 상태로 증상없이 지낼 수 있는 감염인 기간이 증상이 나타난 후의 환자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 에이즈 진단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차이가 많았다. “AIDS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혈액검사를 받아 본다”는 질문에는 91.2%의 정답률을 보여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검사를 통해 에이즈 전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 “에이즈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면 4주 이내에 감염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질문에는 오답률이 33.8%로 바이러스 침입 후 항체 형성기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였다. 대체로 에이즈의 항체양전은 감염 후 2~12주⁶⁾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DS는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AIDS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다”의 질문에는 91.9%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에이즈의 잠복기가 평균 8~10년이란 질문에는 27%가 틀리다고 대답하여서,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다는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지식을 원용하여 대답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들었다.

에이즈 증상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다른 질문에 비해서 정답률이 낮아서, 에이즈의 위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으나 증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Kaposi육종 등의 피부반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74.6%의 정답률을 보였고, 폐렴은 68.9%에서, 암은 57.5%에서 정답률을 보여서 에이즈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지식은 낮았다. 그러나 “에이즈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병으로 죽는다”라는 질문에는 오답률이 52.6%로, 에이즈의 주된 사망 원인⁶⁾인 폐렴, 폐결핵, 육종, 림프종 등의 면역결핍에 따른 이차적인 기회감염이나 암발생 임을 아는 응답자가 반이 되지 않았다.

에이즈의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는 전파매체에 따라서 정답률의 차이가 있었다. “AIDS에 감염된 사람이 헌혈한 혈액으로 수혈을 받으면 AIDS에 걸린다”라는 질문에는 95.7%의 정답률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4.3%의 응답자에서는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아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서 성관계 이외의 혈액을 통한 감염경로를 알지 못하는 소수도 있었다. AIDS에 걸린 사람에게 사용한 주사바늘(94.7%), 귀를 뚫거나 문신을 새길 때 주사바늘(83.3%)의 정

답률은, 나타내어 보이는 혈액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손톱깎이, 면도날 등 일상용품은 AIDS환자와 함께 사용하여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62%의 정답률을 보여 보이지 않는 혈액 성분의 전염위험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모기에 물리면 AIDS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2%로 반을 넘게 오답율을 기록하여, 모기가 피를 빨기 때문에 모기를 통한 혈액전파에 때문에도 에이즈 전파될 수 있다는 지나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정맥주사에 의한 상습적인 약물복용자는 AIDS에 걸리기 쉽다”는 질문에는 60.7%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헌혈하는 과정에서 AIDS에 걸릴 수 있다”고 틀리게 대답한 경우가 86.7%에 달했다. 헌혈 시에도 에이즈가 전파될 위험이 있다고 대답한 높은 오답률은 신영희(1994)¹⁷⁾ 연구의 85.2%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헌혈과 수혈을 혼동하는 것인지 헌혈이 정말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경로에 따라 정답률의 차이가 있었다. “AIDS에 감염된 사람이 나에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74.8%가, “AIDS 환자가 입던 의복을 입으면 AIDS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88.1%, “AIDS보균자와 함께 목욕을 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75.3%의 정답률을 보여, 환자나 감염인과 간접접촉의 위험에 대한 우려로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AIDS 보균자와 함께 운동이나 놀이를 하면 AIDS에 걸린다”는 질문에는 92.2%, “AIDS 보균자와 함께 일하면 AIDS에 걸린다”는 질문에는 92.4%의 정답률을 보여 환자나 감염인과 직접접촉이 없는 일상생활에 의한 전염의 위험이 적다는 사실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그 외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에 대한 지식으로, 약수나 포옹(93.7%), 음식(76%), 물건이나 술잔(69.1%), AIDS 환자의 눈물(83.9%)의 정답률을 보여서 재채기나 의복, 목욕을 통한 전파의 우려와 비슷한 정답률을 보였다.

성적접촉을 통한 에이즈전파에 대한 지식은 “AIDS 감염인과 구강으로 성관계를 하면 AIDS에 걸리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75.6%의 정답률을 보여서 응답자의 1/4은 구강성관계는 에이즈의 위험이 없다고 틀리게 대답하였고, “AIDS에 걸린 사람과 일반적인 키스를 하면 AIDS에 걸린다”는 질문에는 64.6%의 정답률을 보여 1/3의 응답자는 일반적인 키스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잘못알고 있었다.

항문성교의 에이즈감염에 대해서는 79.1%의 정답률로, 동성애에서 행해지는 항문성교가 감염의 원인임을 알고 있었으나, 공중화장실 변기를 통한 AIDS의 전염에 대해서는 30%의 응답자가 잘못알고 있었다.

수직감염에 의한 전파에 대한 지식에서 “임신한 여성이 AIDS에 걸리면 태아도 AIDS에 걸릴 수 있다”는 질문은 87.9%, “AIDS에 걸린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AIDS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질문은 63.2%의 정답률을 보여 분만이나 출산과정을 통해서 전염되는 사실은 비교적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 여성 감염인에 의한 수유가 전파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비교적 적게 인지하고 있었다.

에이즈의 예방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는, 약 1/3의 응답자가 예방백신의 존재를 믿어서 현대 과학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 있었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한 사람과 관계보다 AIDS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질문에는 91.6%의 응답자가 정답률을 보여서 난잡한 성관계에 의한 에이즈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콘돔의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89.5%의 정답률을 보여 콘돔사용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HIV 감염자가 사용한 의복 및 침구는 예방을 위해 모두 태워야 한다”는 질문에는 정답률이 57.5%로 낮아서 에이즈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 지나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였다.

에이즈의 치료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의 정답률은 너무 낮아서, 상담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내 자원(17.5%), 관련지식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시설(15.9%), 치료기관(10.7%)의 매우 저조한 정답률은 에이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고, “AIDS는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질문과 “최근에 AIDS의 치료를 위한 특효약이 개발되었다”는 질문에는 60% 대의 정답률을 보여 에이즈의 치료여부와 치료약에 대한 개념은 적었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문제는 심각하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반(50.2%)에서 “보통이다”로 대답하였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35.5%라고 대답해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발생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으나 자신의 주변의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으며, 응답자의 약 3/4(72%)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약 반수의 응답자는 “기회가 있으면 에이즈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여 에이즈에 대한 불안을 표시하였다.

“주변에 에이즈 환자가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3/4(72.2%)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여, 응답자의 주변에 에이즈 감염인이나 환자에 대한 우려는 적었으며, “불안하다”고 느낀 응답은 소수(7.6%)에 지나지 않았다. 모르는 이성과 성관계시 콘돔사용으로 에이즈를 예방하겠다는 태도와 감염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않겠다는 태도에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에이즈에 대한 혐오감이나 무서움은 약 반수에서 나타났고, 대부분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에이즈 전염은 개인의 잘못이다”라는 질문에는 36.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38.7%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에이즈 환자의 발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였지마는, “나는 에이즈 환자와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18.7%의 응답자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여 에이즈가 일상 생활로는 전파되지 않지만 접촉에 의한 전염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3점 척도를 이용한 감염인이나 환자에 대한 태도 조사는 매우 우호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AIDS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81%의 응답자가 동정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여 사회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도덕적 비난이나 감염행동에 대한 징벌의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반수 이상에서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에이즈 환자의 격리수용이나 AIDS 감염아동의 등교거부의 주장은 비교적 적고 사회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다. 그러나 학교나 직장에서 감염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과 감염된 가족의 보살핌에는 약 반수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 신입생 2,026명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를 파악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 교육하여야 할 감염관리의 항목을 결정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응급구조사의 감염관리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005년 3월에 일개 대학교 신입생 2,0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학교 신입생의 에이즈에 관한 지식정도는 전체 평균 정답률이 70.22%이었다.
2. 에이즈 정의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체의 면역기능을 없애서 병균을 방어할 수 없다”는 항목과 “에이즈 검사결과 양성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항목은 9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으면 환자이다”라는 항목에는 약 40%의 정답률을 보여 에이즈의 경과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에이즈의 진단에 대한 질문에서는 “혈액검사

로 에이즈를 진단할 수 있다”는 항목과 “증상이 없어도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항목에는 91%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항체형성 기간과 잠복기간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에이즈 증세에 대한 질문에는 “감염되자마자 증상이 나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93%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병변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5.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 중에서 주사바늘(94.7%)이나 수혈(95.7%)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으나, 구강 성관계(75.6%)나 항문 성관계(79.1%)를 통하여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6. 에이즈 예방에 대한 지식은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에이즈의 가능성이 높다”는 항목과 “콘돔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항목에는 90%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예방접종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31.8%)거나, 에이즈예방을 위하여 의복 및 침구는 소각해야 한다(49.1%)는 에이즈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는 낮은 지식정도를 보였다.

7. 에이즈의 상담, 검사, 정보취득, 치료기관에 대한 지식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일개 대학 신입생으로 국한 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결과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나 응급구조사를 교육할 때는 에이즈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구급현장과 연관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응급구조과 학생이나 응급구조사가 가지는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레드리본 2006 3/4월호 pp8-9.
2. http://www.unaids.org/en/HIV_data/2006GlobalReport/default.asp 2006.08.14검색
3. <http://www.cdc.go.kr/webcdc/index.jsp> 한국질병관리본부 2006.08.13 검색
4. 주인호: HIV/AIDS 임상의학 일차진료 개원가에 필요한 WHO진단기준. 의협신보 10월 26일 pp12-13 1995.
5. <http://www.sta1318.or.kr>, 2006.08.12 검색
6. 대한감염학회: HIV/AIDS진료가이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p159 2004.
7. 신수린: 레드리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p.24, 2004 9/10월호.
8. 김성순: 레드리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p.24, 2005 11/12월호
9. 대한감염학회: HIV/AIDS진료가이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4. p162.
10. Blendon, R & Donelan, K: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AIDS. The public's perspective. New England J. med., 319 pp.1022-1026, 1988.
11. Schwarz, MR: Physician`s attitudes toward AIDS. In DE Rogers & E. Ginzberg(Ed). Corne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5th conference on Health Policy. Public and professional attitude toward AIDS patient, Westview press, Boulder, 1989.
12. McNicloe, LB., Hadersheck, RE., Dickens, DR. & Brown, JE: AIDS and pregnancy, Survey of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self-identification of risk, JOGNN 20(1), pp.65-72, 1991.
13. Gee, G.: Nurse attitudes and AIDS. In Dalgleish AG and Weiss RA(eds.). AIDS and the new viruses, Academic press, London, 1993.
14. Dear MR & Moore, JB: Children's knowledge and effective response to AID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22(2) pp.65-72, 1994.
15. 오정아: 일부 중.고등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3(1):63-76. 1999.
16. 서인선, 이옥숙: 일부 성인의 AIDS에 관한 지식과 태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1):128-137. 1997.
17. 신영희, 홍영혜: 부산 및 울산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조사, 대한간호학회지. 26(1):33-41. 1994.
18. 김성아: 일부 고등학생들의 AIDS 교육을 통한 지식과 태도 변화, 한국보건 간호학회지. 14(2), 2000.
19. 정영숙, 문영희: 전북지역 양호교사의 에이즈 관련 지식과 태도의 조사연구. 한국보건학회지, 11(2):33-47. 1994.

=Abstract=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in freshmen of an university about HIV/AIDS

Jin-Hue Kim*

This study was designed to get basic data about AIDS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of students of university, especially for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AIDS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of freshmen of university. The subject for this study consisted of 2022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entered in 2005 to Gongju National university in Chungnam province. Data was collected by self-reporting questionnaire consist of 66 items on 20th, February, 2005.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ean overall knowledge score was estimated to be 70.22%.
- 2) The knowledge score about definition of AIDS was high(93.2%), but knowledge score about progression and incubation period was low(48%).
- 3) AIDS related knowledge about diagnosis with blood was high(91.2%), but those about period of antibody formation was relatively low(66.2%).
- 4) The score about latent appearance of AIDS-related symptoms was high(93.7%), but those of apprehension of individual symptom was very low(57.5%).
- 5) Percentage of correctly answered respondent about transmission with needle and transfusion was very high(> 94%), but the score of transmission through the anal and oral sex was relatively low(75-79%).
- 6) The knowledge score about prevention with condom was high(89.5%), but misconception of disinfection and vaccination was also high.
- 7) Acknowledgement about utility of consultation, information, treatment was very low (10-17%).

In the end, the study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prehensive AIDS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knowledge about the disease as well as to allay the fears and anxiety of the contact.

Key Words : AIDS, freshmen of university, AIDS education programs

*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